경인일보(96년~현재)

청년 295명 실무경험 기회

수원상의, 사업 성과보고회

수원상공회의소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청년 295명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출 성과를 냈다. 지난 14일 수원상의는 '2025년 미래내일일경험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래내일일경험사업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고 수원상의가 운영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공공행정, 경영사무, 홍보마케팅 3개 직무에서 진행됐으며 참여 기관은 지난해 13개에서 37개로, 청년 참여 인원은 150명에서 29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수원컨벤션센터와 협력한 MICE 산업 특화 프로그램은 7개 기업, 15명의 청년이 참여해 100% 수료율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졌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